

## 하이디스지회, 투쟁 마무리 보고대회 열어

1,058일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투쟁 마쳐... “연대의 정신 품고 다른 투쟁 시작하겠다”

하이디스지회가 2월 21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1,058일 동안 벌인 하이디스 투쟁을 마무리하는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상목 지회장은 “1천여 명의 후자를 내고도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자행한 외투 자본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 시작한 투쟁이 3년이 흘렀다”라며 “조합원들의 고용을 해결하지 못해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 먹튀 외국투자 자본의 심각성을 알린 싸움”으로 평가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하이디스에 맞선 투쟁은 마무리하지만, 그동안 노동자와 연대 단위 동지들이 보내준 연대의 정신을 품고 고용문제 해결



을 포함한 다른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2월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술 먹튀 외투 자본 대만 이잉크사에 맞서 3년 동안 벌인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투쟁을 해고 무효 소송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조정권고안은 정리해고

에 관한 적절한 보상과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디스지회는 2015년 3월 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투쟁했다. 대만에 다섯 차례 원정투쟁을 다녀왔다. 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정부에게 형사 처벌을 당했다.

이날 하이디스 투쟁보고 대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 “또 죽어야 하느냐. 쌍용차 경영진 결단만 남았다”

21일, 쌍용차지부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2월 말까지 합의 이행하라. 여기면 다시 싸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월 21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 완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는 2월 말까지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라”라고 경고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부

장으로서 더는 해고자 복직을 기다릴 수 없다. 죽음이 다시 이어질까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에 2월 말까지 복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지부와 쌍용차는 2월 20일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23일 2차 실무협의를 벌인다”라고 공개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와 해고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쌍용차는 교섭에서 합의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28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날 저녁 농성장을 설치한 뒤 집중 쏫불 문화제를 열고, 3월 5일부터 전국 300여 곳 쌍용차 영업소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